

지리정보기반의 지역격차와 해소방안

-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리정보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-

-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국가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관리정보체계, 지하시설물전산화,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 등 다양한 GIS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 - 지리정보기반은 행정관련 공간정보의 대민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지리정보기반의 격차가 심화될 경우 정보격차는 물론 기존의 지역 간 경제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음
- 대도시와 중도시는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비교적 높으나,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매우 낮으며 특히 소도시 중에서도 수도권 소도시와 비 수도권 소도시 간에는 현저한 수준격차를 보여주고 있음
 -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는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재정기반 및 정보화마인드 취약 등에 기인하고 있음
- 따라서 정보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지리정보기반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는, 기반이 취약한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지리정보기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차별지원이 필요함

1.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 지리정보기반의 중요성

-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국가의 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식정보기반사회로서,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음
- GIS(Geographic Information System)는 지식정보기반사회의 새로운 SOC로서,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이래 효과적인 GIS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국가GIS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GIS사업이 시행되고 있음
- 국가GIS사업의 추진으로 대도시에서는 도로, 상하수도 등 시설물관리와 토지관리 등 지자체의 주요 행정업무에 GIS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반면 지방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GIS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
 - GIS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GIS DB, GIS활용시스템, H/W 및 S/W, 전문인력 그리고 GIS구축·운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포괄하는 지리정보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지리정보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에서 기인함
- 통계 및 문서 중심의 기존 지자체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공간 및 속성정보가 통합된 GIS정보화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므로, 향후 지자체 GIS정보화 수준격차는 지역 간 정보격차를 의미하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기반의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함
-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는 국가GIS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장애가 되며, 지리정보기반 취약지역의 공공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론, 정보격차 및 기존의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
- 따라서 국가GIS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GIS정보화 및 지리정보기반 강화가 시급하며, 이를 기반으로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

2.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현황

- 제1, 2차 국가GIS사업의 추진으로 전반적인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지방도시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가 초래되고 있음
-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비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,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비해 크게 높음
 - 대·중도시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에 관계없이 지리정보기반 수준이 상당히 높으나 소도시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수준 격차가 매우 큼
 - 비 수도권 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지리정보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음

수도권 및 비 수도권의 지자체 유형별 지리정보기반 수준 비교

구 분		수도권			비 수도권		
		대·중도시	소도시	농촌지역	대·중도시	소도시	농촌지역
GIS기본계획(%)		100.0	73.7	0.0	100.0	37.8	0.0
GIS전담조직(%)		100.0	89.5	0.0	100.0	71.1	0.0
GIS전문인력(인)		12.8	6.0	0.0	9.4	2.0	0.2
기본지리정보DB(점)		6.0	4.1	2.0	5.9	4.8	1.6
GIS SW(개)		43.1	4.9	0.0	25.3	2.0	0.2
GIS활용시스템(수)		6.1	1.1	0.3	6.6	1.7	0.5
GIS 설비	서버/WS(대)	12.4	2.5	0.0	12.1	1.5	0.2
	기타장비(대)	12.8	2.4	0.8	11.1	1.7	0.3

3.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요인

-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GIS전문인력이 부족하여 GIS사업 참여가 어려우며, 지자체의 정책결정자, 업무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GIS 개념 및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GIS정보화마인드가 형성되지 못함
- 국가GIS사업은 대·중도시의 거점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, 대·중도시와 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에 GIS도입여건이 크게 상이함에도 지방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리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이 시행되지 않아 지리정보기반 격차가 확대됨

4. 지리정보기반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

-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지리정보기반 강화를 국가GIS의 역점사업으로 설정
 - 국가GIS가 기반구축에서 활용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지리정보기반이 취약한 지방소도시와 농촌의 지리정보기반 강화를 주요 국가GIS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
 - 대·중·소도시 및 농촌지역 등 지자체별로 달성해야 할 최소한도의 지리정보기반 수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 지자체에 대한 기준준수 강제규정과 재정기반을 고려하여 국가GIS사업에서 지자체 유형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
- ※ 정통부는 지역간,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「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(2000)」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을 시행중임
- 지리정보기반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운용, 인센티브를 제공
 - GIS중앙교육센터에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 GIS공무원 전담교육 프로그램 마련
 - GIS마인드 제고를 위해 GIS홍보를 강화하고 지리정보기반 확충에 대한 경쟁촉진을 위해 소도시와 농촌의 GIS정보화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
-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시·군의 지리정보기반 지원방안을 시행
 -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지리정보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관내 시·군의 계획수립,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

국토연구원 박종택 책임연구원(jtpark@krihs.re.kr, 031 - 380 - 0415)